

현대사회지리학: 전환기 한국의 도시와 지역

최병두, 2002, 현대사회지리학: 전환기 한국의 도시와 지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이 정 록*

일반적으로 사회지리학이란 지표 위의 사회적 현상을 지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한다. 어떤 학자는 사회적 현상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분야로, 또 다른 학자들은 사회문제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공간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를 사회지리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지리학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연구지역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다양하며, 연구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회지리학을 강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적합한 사회지리학의 교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례를 통해 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과 연구주제를 설명한 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지리학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책이 출판되었다. 그 책이 바로 『현대사회지리학: 전환기 한국의 도시와 지역』이다. 한국의 사회지리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라고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연구성과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사회지리학에 대한 왕성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저자답게, 이 책은 도시와 지역문제, 지역불균등발전, 토지정책, 도시인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삶의 질과 도시사회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내용 구성이 다양하다.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지리학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사례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우리나라의 사회지리학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제1장은 사회지리학의 개념과 발달과정, 연구주제 등을 개관하고 있다. 특히 사회지리학의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지적하고, 과거의 종합적 인문지리학 성격의 사회지리학에서 오늘날의 사회지리학으로 전환되고 뿌리내리는 과정을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지리학 발달과정을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지리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지리학 연구방법론, 도시와 인구형상, 인구이동과 농촌사회생활의 변화, 거주지 분화와 도시재개발,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도시사회생활과 지역사회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동향과 연구성과가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 제11장까지는 축적된 필자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의 위기와 사회공간적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제4장은 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 발전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국지적 사회공간의 변화와 그 특징이 수록되어 있다. 제6장, 제7장, 제8장은 토지문제와 도시문제를 서술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개발과정에 나타난 사회공간적 영향과 환경문제, 지대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9장, 제10장, 제11장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삶의 질 문제와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사회지리학에 대한 개념적·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사회지리학 책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원용하여 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과 연구주제를 기술하였다. 반면에 이 책에서는 국내의 경험적 사례를 원용하여 세계화 시대의 사회공간의 변화, 경제발전과정과 관련한 사회공간의 변화, 토지정책과 신도시 개발문제, 도시인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삶의 질, 지역사회운동 등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국내의 실증적·경험적 사례분석을 원용하여 현대의 사회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필자의 왕성한 연구성과가 축적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사회지리학 연구에 대한 저자의 열정과 관심이 잘 드러나 있는 노작(勞作)이라 평가해도 틀리지 않다.

이 책은 사회지리학 교재가 많지 않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사회지리학 강의의 수월성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자가 책의 머리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대학교의 사회지리학 교재로 그렇게 적합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특정 주제에만 한정해서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개념과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보완한다면, 이 책은 매우 훌륭한 사회지리학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의 내용구성은 기존에 출판된 사회지리학 교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내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최근의 사회지리학 연구주제를 서술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책의 부제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이 책은 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지역관련 사회현상·사회문제를 사회지리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매우 돋보이는 성과품이다. 사회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유하고 싶은 책이다.